

2012 전주MBC 연중캠페인

"고맙습니다!"

나눔과 상생, 배려와 감사, 정이 넘치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

제2회

호불문학상
시상식



방송사 최초 본격문학상!
5천만원 고료

일시: 2012년 10월 9일 16시

장소: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훈불문학관

전주MBC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1길 50 대표전화 063) 220-8000 www.jmbc.co.kr

하반기 동호회 행사 일정 확정

이 가을, 그리운 얼굴 만나보세요

골프대회 10. 5 중원골프클럽
등산대회 10.31 삼각산
송년모임 12.13 마포가든호텔

낚시대회 10.12 김포·강화수로
바둑대회 11.15 사우회 사무실
한문동호회 매주 목 사우회 사무실

원로회원 문화탐방(안보견학)을 끝으로 휴식에 들어갔던 사우회 행사가 10월5일(금)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활동을 시작한다.

하반기 골프대회도 충주 중원골프클럽에서 실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서는 회보를 받아보시는 즉시 사우회 사무처로 신청하면 된다.

9~10개팀을 예상하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참가를 마감한다.

낚시대회는 낚시를 겸해 10월12일(금)에 실시하기로 했다.

김포·강화 지역을 사전답사해 장소를 결정하게 되는데 장소가 결정되면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등산대회는 10월31일(수)에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 등산대회는 삼각산에서 실시할 예정인데, 사전답사(9/12) 결과를 토대로 코스를 정한 뒤, 추후 엽서 안내장을 회원들에게 별도로 보내 참가를 도울 계획이다.

유일하게 사무실에서 열리는 바둑대회는 11월15일(목)에 실시하며 오전 10:00에 대진추첨을 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들에게서는 사무처나 김진홍 총무(011-247-0098)에게 연락하면 된다.

올 마지막 행사인 송년모임은 12월13일(목)에 예정돼 있다.

장소는 마포 가든호텔, 저녁 6:00에 개회식을 갖는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 기대한다.

김용철·선동규회원 방문진 9기이사 선임



김재우 이사장



김용철 이사



선동규 이사

주MBC 사장을 역임했다. 신임 이사들은 8월 14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8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8기 이사장을 지낸 김재우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방문진 이사들은 2015년 8월 8일까지 MBC의 공적 책임, 기본운영계획, 경영평가, 예산자금 계획과 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재우 이사장 연임

MBC사우회 김용철·선동규 회원이 7월 27일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9기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로 선임됐

다. 김용철 회원은 MBC에서 정책기획실장과 부사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세종대학 석좌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선동규 회원은 보도제작국장 겸 논설위원을 거쳐 전

노년을 고문 9수를 축하합니다

매일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연다

사우회, 축하 오찬자리 마련

사우회 노서울(기술) 고문이 7월 26일 구수를 맞았다. 사우회 1,300여명 회원 가운데서 4번째로 고참이다. 노고문은 그러나, 나이만 90일 뿐 몸과 마음은 60대 후반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파트 단지를 1시간씩 걷는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남들은 그가 건강을 타고났다고 말하지만 지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는 사우회가 개최하는 등산, 낚시, 바둑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한다. 밤낚시는 그에게 큰 즐거움 중 하나다. 그뿐 아니라 사우회에 출근해 6~70대 젊은이들(?)과 한치 양보없는 고스톱을 즐긴다. 그 살벌한 판에서 타고



• 1923년 함북영천출생 • 1946년 원산 지방체신국 근무
• 1963년 MBC입사 기술관리부국장 시설관리국장
• 1981년 삼척문화방송사장 • 1987년 (주)문화엔지니어링 사장

그러고도 병원과는 거리가 멀다. 10년전 대장암 수술 받은것 말고는. 20년만 젊을 수 있다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의욕이 대단하시다. 사무처는 이날 전통 한정식집 어상(御床-이화여고 정문)에 자리를 마련하고 노고문의 구수를 축하했다. 김민식 전회장은 “노고문의 건강비법을 후배들이 배워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천수를 누리시도록 기원했다. 이 자리에는 이만우 고문과 김민식 전회장, 이연현·민영기 전상임부회장, 김세중 전사무국장, 그리고 사무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사우회 출근도 뺄 수 없는 나이에도 고스톱승을 반타작 술자리도 마다않는 노익장과시

는 날이 반반이라고 자랑이다. 큰부자는 하늘이 만들지만 작은부자는 부지런함에 달렸다(大富由天小富由勤-명심보감)는 그의 생활신조다. 그렇다면 고스톱은 小富由勤인가? 술자리도 마다하는 법이 없다. 점심때는 말할것도 없고 서북청년회 회원들과는 사흘 걸려 마포와 지하철당산역 부근에서 자리를 같이 한다.

노과장이라 불러 주세요!

사우회 여직원 노영혜씨가 8월16일자로 과장으로 승진했다. 노과장은 2004년 8월9일에 근무를 시작해 2012년 8

월8일로 사우회 근무 8년째를 기록했다. 김수량 회장은 노영혜씨가 문화보협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우회 위상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치하하고 과장사령장을 수여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해양산업기술관」



「스타에비뉴 롯데타운」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MBC 뉴스세트」



드라마 「아랑사또전」

국내 최고의 미술솜씨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MBC 미술센터

방송 미술 | 전시인테리어 | 이벤트, 공연 | 영화미술 | 테마파크 | 캐릭터
www.mbcart.com 031-936-0000(대표전화)



드라마 「빛과 그림자」



「show! 음악중심」

런던올림픽 중계를 보고



임 주 원 사우회 부회장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참으로 선전하여 10위를 목표를 훨씬 능가해 세계 203개국 12000여 선수들 중 세계 5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인간이 연출해내는 각본없는 드라마, 이 모든 경기가 끝난 후 각 방송국은 각종 종목에 대한 중계방송을 총 점검하고 채점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MBC가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것은 다분히 예상된 것이요, 장기 파업으로 인하여 급조한 중계방송 팀이라 어쩔 수 없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 중 유망주가 몇 명이며, 무슨 종목에 누가 출전하는가에 따라 금메달의 예상 개수로 몇 위를 달성할까를 산출 하듯이 각 방송국은 출전하는 선수들 못지않게 어떤 캐스터들과 어떤 해설자를 내세워 시청률을 선

중계는 각본 없는 애드리브 국민의 눈 좌우한다

점하느냐에 혈안이 돼왔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스폰서의 광고 수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차범근 해설위원과 함께 월드컵 첫 경기 프랑스 vs 세네갈의 경기와 두 번째 경기 한국 vs 폴란드 그리고 한국 vs 포르투갈의 초반 경

캐스터따라 중계 품위와 맛이 다르고

시청률따라 스폰서 들쭉날쭉

여자 아나운서의 중계

종목진출 팔목할만하나

하이옥타브 목소리로

관중많은 격투기, 야구 등엔 한계

기를 중계했는데 시청률이 타사와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우위를 보여 초반 시청률 1위를 하는 방송국에게 아껴둔 30%의 광고를 전폭 투입하겠다는 스폰서의 약속대로 우리 MBC가 대박을 터트린 일이 있음을 상기한다.

그 만큼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의 중계는 각 방송국의 입장에서 사활을 건 시청률 싸움으로 올인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자니 자연 캐스터나 해설자 섭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 각 방송국은 자연히 간판 아나운서를 정하고 그로 하여금 개, 폐회식 중계 또는 가장 경쟁되는 중계에 최고 캐스터를 내세워 시청률을 선점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연출해 내는 각본 없는 드라마.

그 아름다움과 황홀함에 탄복하고 내가 응원하는 그가 승리 했을 때에 전율과 흥분, 그 통쾌함은 그 무슨 표현으로도 형언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나운서(캐스터)는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칠세라 그 아름다움과 그 거친 숨결, 그 신기의 가까운 모습과 절묘한 자태를 표현해 내야 하는 것이다.

음식의 맛은 손맛따라 다르듯이 스포츠 중계 또한 그 캐스터에 따라 중계 종목의 품위와 맛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 중계도 우열이 갈라지는 것이다. 중계야 말로 각본 없는 애드리브인 것이다.

따라서 그 중계가 깔끔하고 주도면밀하다면 문장에 기승전결이 있듯이

그 중계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자 아나운서의 중계 종목의 진출이 요즘 두드러진다. 그 옛날 70년대 여자 중계를 금기시 할 때에 유일하게 CBS의 한 영호 아나운서가 야구중계를 하였는데 골프, 리듬체조, 싱크로나이즈, 피겨 스케이팅 등 여성 특유의 아름답고 잔잔한 목소리로 해설자와 엮어내는 중계는 마치 FM에서 음악 프로를 진행하듯 감칠맛 나고 깔끔하다 하겠다.

그런데 그 종목이 격투기에 이르러, 과격하고 빠른 경기는 여자 특유의 하이 옥타브가 튀어서 이들이 중도하차 했다. 이로써 시도 종목의 선택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올림픽 종목에서 월드컵이나 아시아 게임에서 살아남자면 아니 금메달을 따거나 승리의 월계관을 쓰자면 죽기를 각오하고 노력을 하며 훈련에 훈련을 더하는 수밖에 없듯이 아나운서(캐스터)도 연습이나 노력 없이 적당히 등 넘어보며 무사안일로 얼버무리는 태도로는 성공 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으며 이번 런던 올림픽의 일단의 소감을 펴 력한다.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시시오.

평생회비

조병옥(관리)7/10 한윤희(관리)8/10 신현필(보도)8/31

연회비

7월 고흥복(12) 김금봉(19~20) 김성호(12~16) 김우룡(11~12) 나명수(12) 배성룡(12) 염재용(13) 이의열(10~12) 이효일(12~13) 장효상(10~12) 전한호(12-80세납부끝) 조병옥(11) 최기범(11~12) 하광언(12) 한병우(06~10) 황학구(11)
8월 조춘희(12) 황학구(12)

신규 입회

4/19 한윤희(관리) : 010-8972-0268 02-2055-0896
서초구 방배1동 브라운스톤방배A 101-1003

경조사향

경사

팔순 | 이대섭(편제)10/08 오병석(관리)11/10 최근수(편제)11/24 심재정(업무)11/30
고희 | 고일미(편제)10/21 김관중(업무)11/05 김영근(편제)11/06 이영생(관리)11/16
이웅재(관리)11/16 안영식(기술)11/20 김상호(대구)11/26 김강정(보도)11/28
회갑 | 박춘평(편제)10/03 이명순(ANN)10/03 권상규(관리)11/16 강성주(보도)11/17
곽성문(보도)11/24 전용학(보도)11/28

결혼

조병옥(관리)장남7/07 박용홍(관리)차녀9/01 조항민(보도)차녀9/01
권선장(관리)아들9/08

전화/주소변경

▶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들께서는 사우회사무처 (02-722-7416)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편제

김영근 용인시수지구성북동361-4 성북아이파크 104-1504
김주배 의왕시 포일동 세거리 23, 포일숲속마을 101-601
박순웅 010-6246-1977
심우승 033-434-7394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곡리 77
우상원 02-6160-9233 강남구 도곡1동 895-8 도곡한신A 3-1106
이상원 고창군 고수면 두평리 220-4
이오기 마포구 독막로18길 5, 상수두산위브A 104-1304
전진권 동대문구 용신동 102-191 (5층)

보도

김중세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LG빌리지 602-1902

기술

김창수 010-8915-2413
황선영 010-7126-7539
황재원 010-4413-2623

부음

하영현(관리)부인상7/13	박홍영(편제)부친상7/20	강홍신(기술)장모상7/21
이길범(관리)장모상7/30	임남규(관리)장모상8/11	이현규(보도)모친상8/13
신원호(기술)모친상8/15	최병태(관리)부친상8/18	김택곤(보도)부친상8/26
김윤근(대구)장인상8/30	김재형(관리)모친상9/06	봉현숙(편제)시모상9/06

-문병화(기술) : 극동대학교교수·前MBC미술센터사장. 방학기간동안 학생들을 인솔하고 필리핀으로 연수를 떠났다가 7월 12일 저녁식사 도중 갑자기 쓰러져 현지에서 별세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올해 61세. 1977년에 MBC에 입사했으며 기술정책국장과 방송인프라국장을 역임했다. 유족들은, 문교수 회갑이 7월 27일(음력으로 6월9일)이어서 귀국하는대로 가족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다고 애통해 했다.

-정인호(관리) : 前문화체육관광관. 심장마비로 8월14일 별세. 올해 75세. 6월하순, 친구들과 함께 강화도에 놀러갔다가 쓰러진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삼천포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지낸뒤 MBC에 입사해 光州주재 기자와 문화체육관 관장을 역임했다. 퇴사후에는 경기도 여주에서 개신교 장로로 전도에 앞장서기도 했다. 결보기에는 건장한 체격에 건장한 모습이었으나 평소 심근경색과 폐혈증, 심부전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보(보도) : 前안동MBC사장·방송위원회위원. 8월23일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올해 68세. 신아일보 기자였던 1980년 언론통폐합 때 MBC로 옮겨 사회부장과 해설위원, 총선방송 기획단장을 역임했다. 5월 중순 종합검진때 순천향병원에서 췌장암 3기 판정을 받고 그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3개월 뒤인 8월 초순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다. 병원측에서는 췌장암도 치료를 시작하면 몇 개월은 버티는데 환자가 이처럼 빨리 타계한것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밝혔다.

-이종희(기술) : 9월11일 밤에 노환으로 별세했다 올해 81세. 12년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뒤 언어장애와 거동이 불편해 요양을 해오다가 지난해 다시 2차 뇌졸중을 맞았다. 1968년에 입사해 TV기술부장과 구매부장을 역임했으며 1988년에 관재국 부국장때 정년퇴직했다.

업무

권오형 010-9939-5331
최창업 관악구 서림동 1694 신림현대A 107-503

관리

김성규 양천구 신정1동 목동신시가지A 927-1308
성기정 송파구 잠실3동 44레이크팰리스A 109-204
신홍구 010-5198-7171 070-8276-5900
오병석 010-4361-1955
임진섭 김포시장기동1885-6 고창마을 호반베르디움 512-505
장기태 010-2809-1623
최동윤 은평구진관동88 은평뉴타운 우물골 206-402

대구

정승호 010-2051- 3430

대전

신병호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77, 휴먼빌 103-1902

이 사람!

하 광 언
前 원주문화방송 사장

▶박사학위 받은 날 부인과 함께
8월 31일 연세대학교 2012년도 학위수여식에서 논문 '헤겔의 언어 철학'으로 9년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양 고전 가운데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다. 5세기 로마제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보에티우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유배지에서 처형의 날을 기다리며 쓴 책이다. 그는 집정관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사상을 현실정치에 구현하고자 노력하다가 그만 반대파의 모함에 걸려 반역죄로 몰리게 됐다고 한다.

“정의에 입각하여 불의에 대해 준엄한 태도를 취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유언이나 다름없는 이 글을 통해 무리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철학적 교훈을 남기려고 시도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자신의 허망하고 비참한 심경을 내면의 정신적 위안으로 극복해서, 자신의 죽음이 원한과 집착으로 인해 흉물스럽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 같다. 이 책을 쓰고 얼마 후 보에티우스는 처형됐다. 책

나는 왜 철학을 하는가? 철학의 위안을 고대했나?

인생해법은 타인의 사례나 조언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얻어지는게 아닐까
시간 죽이러 들어갔다가

이젠 순수학문과 씨름하는 장본인 된 게 큰 위안

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그는 아마도 철학의 위로 속에 죽음을 안식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같은 인생철학 시리즈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마케팅 표적이 ‘청춘’에서 ‘중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중년수업」 「마흔 이후 나의 가치를 발견하다」 등이다. 특히 「남자의 물건」은 출간 한 달 만에 1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이와 같은 생활철학사에서 위안을 얻는 것은 ‘대박을 터뜨린’ 저자 한 사람에 그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정신적으로 조금은 여유로운 사람들이 작가의 재담을 읽고 위로도 받는 것이지, 절박한 처지에 놓인 청춘이나 중년이 한가롭게 책에서 해답을 구할 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 위안이나 인생해법은 타인의 사례나 격려에 의지해서는 얻기가 쉽지 않고, 적어도 보에티우스에서처럼 위기일발의 자기성찰을 통해서나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남자의 물건」에서는 제목부터가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건드려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 구매 욕구를 유발하고 있지만, 일반철학에 대해서는 아무리 걸 표지를 요란하게 꾸며 봐야 부정적인 고정관념밖에는 할당되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쉽지 않거나 일부러 어렵게 만든다’ 라든가 ‘사변적이고 관념에 빠져있다’와 같은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사변이나 관념이 아니면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축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

이른바 ‘헤겔리언’들도 그중의 하나다. 비록 헤겔이 죽고 난 후 그의 변증법이 독일 지식인들 사이에서 ‘죽은 개’ 취급을 받기는 했지만... 여하튼 한쪽 에 거부당하는 철학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많은 4, 50대 독자들은 솔직하고 직설적인 「남자의 물건」같은 철학사에서 어렵지 않게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퇴직 당시 “시간이 아주 많은 어른들”을 마치 별개의 사회계층인 것처럼 구분하기 시작한 사회풍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피해 들어간 곳이 오히려 젊음이 들끓고 있는 신춘캠퍼스였다. 별생각 없이 그냥 ‘시간사냥꾼’인 철학을 하고 싶었던 것이 동기라면 동기였는데, 이 글을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동기라는 게 바로 보에티우스류의 ‘철학의 위안’이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타직종으로) 재취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 덕분에, 지난 12년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자책은 면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나는 이제 겨우 특정 학문의 문턱에 한쪽 발을 걸쳐놓은 수준이지만, 이 학계라는 사회 또한 방송만큼이나 특이한 세계이다.

방송생활 자체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바로 그같은 특성 때문에 사회 곳곳의 색다른 면면들을 깊이 있게 접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방송 이외에 또 하나의 생활세계를 조금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데서 큰 위안을 얻고 있다. 전공인 ‘헤겔의 언어철학’ 자체에서 오는 사상적 위안 같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나이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중력의 자유공간에서 아직도 순수학문에 매달려 씨름하고 있는 ‘용기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됐다는 사실이 더 큰 위안으로 다가온다.

회원동정



고창근(ANN)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참가

前청주MBC사장. 「MBC올림픽방송단」의 일원으로 런던올림픽 중계방송에 참가했다. 체조의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순간을 비롯해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중계방송해 마이크를 놓은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녹슬지 않는 실력을 과시했다.



신형창(보도)
일산 대원아파트단지 노인회 회장

7월23일,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대원아파트단지 노인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석진(보도)
새누리당 대선캠프 공보단 공보위원 임명

前MBC논설위원·연합뉴스TV보도본부장. 8월 27일, 새누리당 대선캠프 공보단 공보위원으로 임명됐다.



하동근(보도)
재능교육 신규사업부문 대표이사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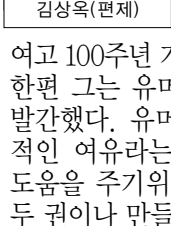
JEI재능그룹 최고전략책임자겸 재능TV사장. 9월5일, 재능교육 신규사업부문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하사장은 재능그룹의 CSO와 재능TV사장, 재능그룹 정보기술부문 계열사인 재능e아카데미 대표를 겸해 재능교육의 신규사업 부문을 총괄 지휘한다.



김승수(편제)
서울예술대학 전임교수로 출강



김상욱(편제)
시각장애학생 미술작품전 개최
제2 유머집 <또 외워서 남주는 유머> 발간



동의난달 운속미술회(회장 김상욱)는 2012 ‘시각장애학생 미술작품전’을 10월24~30일까지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다. 한편 그는 유머집 2탄 <또 외워서 남주는 유머>를 발간했다. 유머는 그냥 우스운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라는 이어령교수의 말처럼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기위해 전공도 아니면서 내가 유머책을 두 권이나 만들게 된 이유다.



이창식(편제)
세 번째 우간다 의료봉사
약품900kg과 돌보기 300개 지원

올해로 세 번째의 우간다 의료봉사를 보름간 다녀왔다. 대사회 대학생30명과 현지 교포의 사, 헬스워커, 서수남 홍보대사를 포함한 영상팀, 우리 직원6명등 42명으로 구성됐다. 말라리아약 등은 현지에서 구입하고 국내에선 15개 유명제약회사에서 흔쾌히 후원한 각종 필요 약을 30박스 900kg으로 항공화물을 꾸렸다. 특히 이번엔 강렬한 햇빛의 적도지방이라 의외로 시력이 일찍 나빠져 안경이 필요하다는 현장건의에 따라 돌보기300개를 기증했다. 지역정부 보건국과 의료 취약지역 6개 마을을 선정, 일일 500명(총3000명) 정도의 주민들에게 치료와 처방을 해주는 연례사업이다.

등산클럽 1박 2일, 양주문화동산 펜션에서 친교

등산클럽(회장 박한성)은 8월 전반기 산행을 1박2일 특별행사로 치렀다. 등산클럽은 8월8일(수)과 8월9일(목) 양주 문화동산 숙박시설을 빌려 등산클럽회원과 사우회 일반회원을 초청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친교를 나누었다. 등산클럽은 특히 닭백숙과 보양탕, 수육 등으로 식단을 마련하고 복덕위에 지친 회원들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문공부방/ 유희근의 논어이야기 2



논어 里仁編에 나온다. 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 -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할지언정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자한다.” 즉 “군자는 말을 앞세우지 않는다.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뜻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태복음)”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불교에서 예불할 때 반드시 독경하는 千手經의 첫머리가 淨口業眞言이다. 이게무슨뜻인가? 입으로 지은 잘못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다. 欲訥於言而敏於行, 군자의 덕목 아닌가.

달 밝은 밤에는 고기도 쉬는가

남시동호회 밤낚시대회
끈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다는 올 밤낚시가 8월2일과 3일, 9월6일과 7일에 걸쳐 두차례 아산 봉재저수지에서 실시됐다. 8월2일 첫 밤낚시에서는 김지현(업무)-이방근(관리) 회원이 월적을 기록했음은 물론 다른 회원들은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끈들의 요청에 따라 9월6일 두 번째 밤낚시를 실시했다. 두 번째 밤낚시는 처음으로 시상제를 도입했는데김종복(편제)회원이 32Cm짜리 붕어를 잡아 월적을 기록하면서 1등상을 받았다. 준우승은 29.1Cm짜리 붕어를 잡은 송재선(업무)회원, 행은상은 41.5Cm짜리 잉어를 잡은 김지현(업무) 회원이 차지했다.